



# 환율 전쟁의 영향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최근 휴전 국면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환율을 둘러싼 국가간 마찰이 그동안 심상치 않다. 환율은 설비 자재 원료인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근간인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설비건설 가족들도 좋든 싫든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환율 전쟁의 내용과 향후 방향을 간단히 짚어 볼까 한다.

(2010년 10월~11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4/4분기가 시작 되면서 관류 단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함. 동관의 상승은 예상대로지만, STS관은 니켈의 국제 시세가 소폭 하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에 비해 인상됨</li> <li>- 특히 강관은 구협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시 확인 필요. 수요가 증가하고 제강사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강관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li> </ul>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제강사들의 가격 인하와 내수시장 침체가 맞물려 메이저 제강사들도 현재 인하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음.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볼 때 내년 6월까지의 인상될 여지가 많지 않음</li> <li>- 강관(나사, 용접) 관련 제품들은 전월과 같거나 소폭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li> </ul>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에도 LME 시세는 상승세를 이어감. 앞으로도 동관 및 동 관련 제품들의 가격은 쉽게 안정화되지 않을 전망</li> <li>- 특히 동용접봉은 9월 대비 약 20% 인상되었으므로 가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함</li> </ul>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가격 변동을 보면 8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BASE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거래되고 있음</li> <li>- 상대적으로 저렴한 STS관이 동관 대체품으로 활용이 되면서 원자재 시세와는 다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li> </ul>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승 가능성 및 그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재는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그 외의 자재들은 입고 시점마다 개별 견적 비교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것이 유리함. 단, 결제 조건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거래가 많지 않았던 자재 공급사에는 확실한 결제 조건으로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음</li> </ul>

최근 3년간 원화/달러화 환율 변동 추이



(자료:원캐네트웍스, 2010년 10월)

환율은 국가 경제 특히 국가간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근래 들어 세계 패권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많은 나라들을 불안하게 하며 격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 도에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다. 그만큼 환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은 금융 위기를 맞아 경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 지출을 늘려 내수를 부양해 왔다. 또 한쪽으로는 수출을 늘려 해외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 모아 왔다. 그런데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다. 결국 믿을 건 해외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연유로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 즉 환율 인상이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2천원 짜리 물건을 미국에 팔 때 환율이 1대 1천이면 2달러에 팔아야 2천원을 벌지만 1대 2천이면 똑 같은 상품을 반값인 1달러에 팔아도 2천원을 번다. 당연히 환율이 높아야 싼 값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국 및 여타의 국가는 정반대의 입장이 된다. 그래서 환율 전쟁은 불가피하고 점입가경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미·중 환율 전쟁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 및 이에 따른 아시아 시장의 성장 동력 상실 등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의 힘겨루기 여파로 원자재 가격 인상,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설비 가족들도 이에 대비해야 하겠다. 🌐

**김현희(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캐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